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금요일—저녁 집회)

메시지 6

세 번째 큰 기둥—교회

(1)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성경: 엡 2:19, 살전 2:12, 골 1:13, 요 3:3, 5, 롬 14:17, 마 6:10

I. 에베소서 2장 19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A.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낸다—엡 2:19.
- B.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의 주된 관념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시민권에 관한 것이다.
- C. 모든 믿는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범위이다—요 3:5, 계 1:6, 9.
 - 1.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은 항상 함께하는 두 가지, 곧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다.
 - 2. 우리는 왕국의 권리를 누리고 왕국의 책임을 진다—계 22:14, 눅 14:15-24, 19:11-27, 마 24:14, 28:18-19.

II.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신성한 다스림 아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이다—살전 2:12.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신성한 범위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이 의도하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마 6:10.
- B. 신약은 왕국의 노선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은 왕국을 위한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반역적인 죄인들이 구원받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막 1:14-15, 마 4:17, 행 8:12.

III.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 왕국이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된다—마 4:23, 16:18-19.

- A.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신성한 생명이 왕국이며, 이 생명이 교회를 산출한다—요 3:3, 5, 마 7:14, 21, 19:17, 29, 25:46.
 - 1. 왕국은 생명이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생명의 영역이며, 이 생명의 영역이 왕국이다.
 - 2. 복음은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고 이 생명은 그 영역을 갖는데, 이 영역이 바로 왕국이다. 영역을 갖고 있는 신성한 생명이 교회를 산출한다—딤후 1:10.
 - 3.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왕국이 생명 자체이고 교회는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마 4:23, 행 8:12.
- B. 왕국은 교회의 실재이다. 그러므로 왕국생활을 떠나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없다—마 5:3, 16:18-19, 계 1:4-6, 9.
 - 1. 천국의 실재(마 5-7장)가 교회생활의 내용이다. 왕국의 실재가 없다면 교회는 빈 것이다.

2. 왕국생활이 교회생활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적으로 왕국생활 안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할 것이다—롬 14:17.

C. 교회의 실재인 왕국이 없다면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마 16:18-19.

1. 교회는 왕국의 권위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2. 교회 건축을 가능하게 하도록 왕국 열쇠들이 주어졌다—마 16:19, 18:18, 비교 요 20:23.

3. 천국이 한 무리의 믿는 이들에게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이 믿는 이들은 교회로 건축될 수 있다—골 2:19, 엡 4:15-16.

IV.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골 1:13.

A.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즐거운 왕국,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골 1:13.

B. 우리는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살 때, 그분의 왕국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누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갖는다—골 3:4, 요 6:57.

C.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현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한 시대로 이루어지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강조점은 이 시대, 곧 교회 시대에 있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에 있다.

1.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기쁨에 속한 즐거운 영역이다—마 3:17, 17:5.

2. 오늘날 교회생활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V.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種)의 영역이며, 이 영역 안에 모든 신성한 것들이 있다—요 3:3, 5.

A. 신성한 영역, 곧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 된다—요 1:12-13.

B.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종(種)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다—요 3:3, 5.

VI.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국생활을 산다—마 16:18-19, 18:17-18, 13:44-46, 롬 14:17, 고전 4:20, 엡 2:19, 골 4:11, 계 1:4-6.

A. 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왕국과 연관지어 교회를 언급하셨다. 이것은 왕국과 교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마 16:18-19, 18:17-18.

1. 로마서 14장 17절은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2.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생활(17절)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권위의 측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3.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복음의 일에서 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골 4:11.

4.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교회는 왕국을 대표한다.
- B.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할 때에만 실질적으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롬 8:4, 갈 5:16, 25.
- C.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도록 허락할 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특징이 될 것이다—롬 14:17.
- D.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아래 있는 이들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왕국생활을 살면서, 성숙에 이를 때까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해야 한다—고후 3:14, 막 4:26-29.
 1.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계시된 대로 신성한 생명의 완전한 발전을 체험함으로써, 계속 전진하여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한다.
 2. 신성한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성숙에 이르고, 또한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 있는 왕국의 실재 안에 산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고전 15:50, 갈 5:21.

VII. 교회는 왕국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다—마 6:10, 12:22-29, 계 11:15, 12:10.

- A.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B. 교회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와 이 땅에서 그 뜻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마 6:10, 7:21, 12:50.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하나님의 왕국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한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범위이다. 믿는 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다. 이러한 시민권에는 항상 병행하는 두 가지, 곧 권리와 책임이 있다. 우리는 왕국의 권리를 누리고 왕국의 책임을 진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두 방면, 즉 ‘동일한 시민’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왕국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집을 다룬다. 하나님의 집은 생명과 누림의 문제이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왕국은 권리와 책임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태어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시민권과 그들의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두 가지 심오한 것들이 다루어진다. 그것들은 권리와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아버지의 생명과 풍성의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말한다. 성도들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단체적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 가족이 없다면 왕국이 있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개별적인 성도들이다. 그 다음 단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집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 앞에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바울의 사상은 나그네요 체류자였을 때의 우리의 이전 신분을 관심한다. 나그네와 체류자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국과 관련된다. 이 나라에서 나그네는 가족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관련하여 나그네이다. 나그네와 체류자는 가족에 대해서가 아니라 왕국에 대해서 외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왕국을 언급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시민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왕국은 가족들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을 말한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근거를 준다. 여기에서 언급된 시민들은 가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국, 나라에 관련된다. 하나의 가족은 시민들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실지로 왕국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옛사람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육체 안에서나 자아 안에서 살 때마다 우리는 실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옛 영역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완전히 강탈하여 자신의 왕국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 안에 있는 대신 육체 안에서 산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하며 행동하고 전적으로 영 안에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으며 실지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단체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단체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단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단체적인 인격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생활하는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생활하는지는, 우리가 지체들로 생활하는지 아니면 시민들로서 생활하는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로서 사는 것은 누림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다는 것은 책임지고 통제받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가족의 구성원들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교회의 실재임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의 실재이다. 신약에 따르면 교회는 왕국과 밀접히 관련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선포하셨고, 19절에서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19절에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18절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천국이라는 강한 증거이다.

교회의 실재인 왕국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실재인 왕국을 필요로 한다. 비록 왕국이 교회의 실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왕국의 실재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왕국이 교회의 실재라고만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생활임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생활이다. 이것을 강하게 증명해 주는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에 따르면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은 교회시대이며 다음 시대가 왕국시대가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의 왕국이 '있게 될 것이다(shall be)'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is)'라고 말한다. 믿는 이들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로마서 14장의 문맥에 따르면 왕국은 오늘날의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의 실재는 왕국이다. 로마서 12장은 몸의 생활에 대하여 말하며, 14장은 왕국생활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왕국생활이 몸의 생활의 실재임을 가리킨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교회시대이며, 다음 시대는 왕국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이곳에 있다. 왜냐하면 왕국은 교회의 실재이며 교회생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곧 왕국이다. 교회는 오늘날 왕국이므로 왕국이 다음 시대까지 완전히 연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왕국이 오늘날의 교회생활임을 분명히 증명해 준다.

더 나아가 교회와 관련된 사도행전에서는 왕국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8:12, 14:22, 19:8, 20:25, 28:23, 31). 사도행전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했다(8:12). 복음은 왕국복음으로도 불린다. 그러므로 왕국이 오늘날의 교회생활과 전적으로 분리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회생활은 왕국생활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의 다스림 아래 생활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그런 유형의 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교회생활 안에서 왕국생활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는 교회생활인 하나님의 왕국이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의와 화평과 기쁨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의와 화평과 기쁨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실 때 그분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우리의 의이시고, 타인들에 대하여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의 기쁨이시다.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 의롭게 생활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엄격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 안에서 왕국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타인들에 대하여 화평 가운데 산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화평에 의하여 특징지어져야 한다. 타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기를 노력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그들과 화평 가운데 있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화평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살아내어진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 안에서 왕국생활을 산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우리가 즐겁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참으로 왕국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할 것이며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들에 대하여 의롭게 되며 타인들에 대하여 화평 가운데 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한 삶은 교회생활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발전하고 자란 사람들은
넉넉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것임**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발전하고

자란 그러한 믿는 이들은 넉넉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것임을 본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넉넉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왕국 안으로 처음 들어간 것은 거듭남이지만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계시된 신성한 생명의 완전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씨인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할당받았다. 모든 신성한 풍성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들을 미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다음 우리는 우리의 미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는 결국 성숙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발전하고 자란 사람들이 다가오는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어떤 믿는 이들은 다가오는 왕국 안에서 몫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생활해 오지 않았으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충분한 성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왕국이 나타날 때 그들은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충만한 정도로 자라고 발전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교회*, 214-218, 220, 222-223쪽)